



# 보도자료

(2021. 7. 21. 수)

국회의장  
공보수석실  
www.assembly.go.kr  
(02) 6788-2050, 2523

## 박병석 국회의장, “한국 수소차 · 연료전지는 세계 최고…한-칠레 협력으로 양국 모두 수소강국 될 수 있어”

- 박 의장,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 예방 받아 -

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“한국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고, 칠레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” 며 “양국이 협력하면 모두 수소강국이 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이어 “칠레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. 태양광 발전, 철도 교량 사업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” 고 밝혔다.

칠레는 지난해 11월 ‘국가 그린수소’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공급국가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해외 기업들은 칠레에 수소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이다.

알라만드 장관은 “양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. 현재 한-칠레 FTA(자유무역협정) 현대화를 위해 노력중이다” 면서 “양국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, 그린수소, 사이버안보, 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다” 고 말했다.

또 “의회 간 협력이 없으면 양국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는다. 한-칠레 간 의회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” 고 말하며, 박 의장에게 칠레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.

박 의장은 “초청에 감사하다 “면서 “양국은 공통 가치를 가진 우방국이고,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아주 크다” 고 말했다.

박 의장은 “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도 중요하다” 며 한-칠레 의원친선 협회장인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을 알라만드 장관 일행에게 소개했다.

이 의원은 “한-칠레 FTA 현대화 등은 의회에서 인준을 해야 마무리가 된다” 면서 “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밝혔다.

박 의장은 “한국이 태평양 동맹(Pacific Alliance)에 준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, 협상이 조기에 개시되길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태평양 동맹은 멕시코, 페루, 콜롬비아, 칠레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동맹으로 지난 2011년에 결성됐고, 2012년 공식출범했다.

알라만드 장관은 “한국의 태평양 동맹 가입에 관해 잘 알고 있다. 로드리고 야네스 외교차관이 몇 년간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며, 내년에는 꼭 한국이 가입되길 바란다” 고 답했다.

예방에는 로드리고 야네스 칠레 외교차관, 글로리아 시드 주한칠레대사,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, 김형길 외교특임대사,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.<끝>